

# 월드컵 길목 '지옥의 2연전'... 시리아 무조건 이겨야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 4차전 출전을 위해 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내일 안산에서 시리아 상대 최종예선 A조 3차전  
손흥민·황의조·황희찬 절정의 골감각... 시원한 승리 기대  
12일 '원정팀의 지옥' 아자디 스타디움서 이란과 맞대결**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벤투호가 동아시아와 중동을 넘나드는 '지옥의 2연전'을 치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3차전을 치른다.  
이어 12일 오후 10시 30분에는 이란 테헤란의 '원정팀의 지옥'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중동 최강 이란과 4차전 맞대결을 펼친다.  
홈에서 연전을 치렀던 1, 2차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홈에서 첫 경기를 치르고 중동으로 장거리 원정을 떠나 두 번째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전력의 핵심인 해외파 선수들이 시차에 두 번이나 적응해야 하는 가혹한 일정이다. 게다가 상대도 만만치 않아 이번 2연전은 벤투호의 카타르행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첫 상대 시리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1위로 한국(36위)보다 40여 계단 낮다.  
A조 순위에서도 한국은 이란(승점 6)에 이어 2

위(승점 4)에 자리해 있고, 시리아는 승리 없이 4위(승점 1)로 처져 있다. 하지만 한국은 시리아와 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인 적이 별로 없다.  
한국은 상대 전적에서 4승 3무 1패로 우위에 있지만, 1978년 첫 대결(2-0 승리)을 제외하면 이길 때 늘 1점 차 진담 승부를 펼쳤다.  
2016년 9월 치른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원정 경기에서는 출전 끝에 0-0 무승부에 그쳤고, 당시 대표팀을 이끌던 울리 슈틸리케 감독 경질론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됐다.  
그리스 1부 리그 니케아스에서 주전으로 뛰는 2선 공격수 야스 오스만과 아랍에미리트(UAE) 1부 알와흐다 소속으로 올 시즌 3골 3도움을 기록 중인 오마르 크리빈 등이 경계해야 할 선수다.  
답답한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는 벤투 감독으로서 시리아전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다. 다행히 해외파 공격수들이 소속팀에서 절정의 골감각을 과시했다.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소속팀에서 나란히 3골씩을 기록 중이

다. 이들 모두 팀 내 최다 득점자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 9무 13패로 밀린다.  
게다가 아자디 스타디움은 한국에 난공불락의 요새다. 한국은 이곳에서 단 한 번도 이란을 이겨본 적이 없다.  
가장 최근에 두 팀이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맞대결한 것은 2016년 10월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로, 한국은 골잡이 사르다르 아즈문(제니트)에게 전반 25분 결승골을 얻어맞고 0-1로 졌다.  
한국은 최근 6경기(2무 4패)째 이란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란에 마지막으로 승리한 것은 2011년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1-0 승)으로 벌써 10년 전 일이다.  
벤투호는 아즈문(6골 1도움), 알리레자 자한바흐시(3골 2도움·페예노르트), 메흐디 타레미(5골 1도움·이상 소속팀 기록·포르투) 등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유럽파 공격수들을 잘 막아야 승산이 있을 전망이다.  
극성스럽기로 악명높은 이란 축구 팬들의 응원 소리가 예전보다 작을 것이라는 점은 벤투호에 다행이다.  
아자디 스타디움은 최대 10만여 명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홈 관중이 1만 명만 입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광주FC 엄지성 K리그1 '영플레이어상' 받을까

### 신예 선수들 경쟁 치열

K리그1 신예들의 '영플레이어상' 경쟁이 치열하다.  
올 시즌 K리그1에서만 23세 이하(U23)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7%다. 2017년 27.30%에서 매년 U23선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더 젊어진' K리그1에서 각 팀을 이끄는 신예 선수들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이에 발맞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8월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신설하기도 했다.  
리그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올 시즌 '영플레이어상' 경쟁에도 눈길이 쏠린다.  
연맹은 프로축구 출범 후 1985년부터 2012년까지 그해 프로 입단 선수만을 대상으로 '신인 선수상'을 수여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는 더 많은 선수가 '최고의 신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 '영플레이어상'을 만들었다. 2020년부터는 K리그2에서도 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다.  
영플레이어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만 23세 이하 ▲K리그 공식 경기 최초 출장 시즌으로부터 3시즌 이내 ▲해당시즌 2분의 1 이상 출

장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광주FC 엄지성(19·MF), 수원 삼성(19·FW)·김태환(21·DF), 울산 설영우(23·DF), 포항 고영준(20·MF) 등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급고교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에 뛰어든 엄지성은 30경기에 나와 3득점 1도움을 올리고 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드리블이 돋보이고 작은 체구임에도 위력적이고 공격적인 슈팅이 강점이다. 신인다운 패기로 슈팅 47회(공동 12위), 유효슈팅 18회(공동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엄지성은 8월 한 달 5경기에 나와 11차례 슈팅으로 유효슈팅 4개, 1골을 기록하며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초대 수상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매달 출신의 정상빈과 김태환은 '집안 경쟁'을 하고 있다.  
23경기에 나온 정상빈은 6득점 2도움의 활약으로 후반기 중 가장 많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빈 공간을 파고드는 침투력과 골 결정력이 장점으로 감탄을 받았다. 5라운드 포항전에서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했고, 울산·전북 등을 상대로 득점을 만들었다.



광주FC 엄지성

올해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태환은 후반기 중 가장 오래 그라운드를 지켰다. 30경기에 나와 2747분을 뛰면서 1득점 5도움을 올렸다. 그라운드경합 성공 117회(13위), 공격지역 패스 성공 277회(14위)를 기록하며 마지막 기회에 도전하고 있다.  
설영우는 공격수 출신답게 상대의 공격을 예측한 좋은 수비로 국가대표 풀백 김태환과 훗날이 버티고 있는 울산에서 존 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영플레이어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 그라운드 경합 성공 117회(13위), 공격지역 패스 성공 277회(14위)를 기록하고 있다.  
포항 U12·15·18을 모두 거친 고영준은 지난해 8경기에 나와 경험을 쌓았고, 올 시즌에는 29경기를 소화하면서 3득점 2도움을 만들었다. 168cm의 단신이지만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드리블 능력과 킥이 강점. 후반 조커 역할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황대인, KIA '4번' 의미 찾아라

### "타격과 수비 꾸준함 보여주겠다"

KIA 타이거즈의 황대인이 '4번' 의미를 찾아야 미래가 있다.  
KIA는 장타력 부재로 시즌 내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시즌 중심 타선에서 힘을 보여줬던 터커, 최형우, 나지완이 부상 등으로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공격 지표가 뚝 떨어졌다.  
내년 시즌에도 베테랑들의 활약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신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4번 타자 황대인의 남은 시즌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경기고 출신인 황대인은 지난 2015년 '대형 거포' 자원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KIA 유니폼을 입었지만 앞선 시즌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짙은 부상에 수비 약점도 황대인의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  
올 시즌 1군에서 시작은 늦었지만, 부상 없이 버티면서 기회를 얻고 있다. 5일 경기 전까지 63경기에 출전하면서 지난 시즌 기록한 개인 최다 경기타이를 이뤘다. 타석수는 다르다.  
지난해 데뷔후 가장 많은 116타석에 들어섰던 황대인은 올 시즌에는 이미 226타석을 소화했다. 꾸준하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4번'이라는 특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4번 자리에 가장 많이 선 황대인은 '결정력' 싸움을 하고 있다.  
KIA의 '테이블 세터'인 최원준과 김선빈이 최근



황대인

자가 있을 때 많이 긴장했다. 지금은 즐겨보자는 생각으로 타격을 하고 있다. 연습할 때도 외야 쪽으로 공을 날리지는 생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경험을 많이 쌓고 있다. 몰랐던 부분도 많이 깨우쳤고, 똥구 부어가 되면서 경기 감각이 좋아진 것 같다"며 "투수와 공 꺾음을 잘 몰랐는데 많은 경기에 나가면서 눈에 익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9개의 홈런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상황에 따른 '맞춤형 타격'이 황대인과 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황대인은 "그런 부분을 감독님이 많이 강조하신다. 저랑(최)형우 선배를 빗대서 '최형우는 안타를 치려고 하는데 너는 홈런을 치려고 한다'고 말씀하신다. 400타석에서 30홈런을 친다고 하면 남은 370타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볼넷도 있을 것이고, 운 좋은 안타도 있을 것이고, 잘 맞은 안타도 있을 것이다. 남은 타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하신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황대인에게 4번은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 시즌 최형우가 3번 타자로 서기 때문에 황대인은 경기를 하면서 '특별 과외'를 받고 있다.  
황대인은 "뒤에서 지켜보면 투수마다 선배 폼이 달라지고 타이밍 잡는 것도 달라진다. 그런 것은 아직 잘 못하겠는데 이를 배우야 한다"며 "수비는 기본이다. 한 타석 한 타석이 경험이다. 타격에 집중하면서 꾸준함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레스터시티 동화' 쓴 라니에리 감독 EPL왓퍼드 사령탑 올라

레스터시티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우승을 일궈낸 클라우디오 라니에리(70·사진) 감독이 왓퍼드 사령탑에 올랐다.  
왓퍼드는 4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라니에리를 새 감독으로 선임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시즌 1부리그로 승격한 왓퍼드는 3일 시스코 무노스(41) 감독과 결별했다.  
무노스 감독이 팀의 승격을 이끌었지만, 왓퍼드가 EPL에서 20개 팀 중 15위(승점 7·2승 1무 4패)로 부진하자 개막 후 7경기 만에 사령탑 교체로 결정했다.  
결국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번째로 감독을 경질한 왓퍼드는 재빠르게 후임으로 라니에리 감독을 선택했다.  
1986-1987시즌부터 프로팀 감독으로 활동한



라니에리 감독

라니에리 감독은 이탈리아의 나폴리,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AS 로마, 인터밀란 등을 두루 거쳤고, 발렌시아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첼시(잉글랜드), AS모나코(프랑스) 등 유럽 다수 팀을 지휘했다.  
2015-2016시즌에는 레스터시티를 이끌며 132년 만의 EPL 우승이라는 '동화'를 써냈고, 낭트(프랑스)와 풀럼(잉글랜드)을 거쳐 지난 시즌까지 삼프도리아(이탈리아)를 맡았다.  
EPL로 돌아온 라니에리 감독은 이달 16일 리버풀과 8라운드 홈 경기서 왓퍼드 데뷔전을 치른다. /연합뉴스